

전통과 문화, 힐링 조화 이루는 수행도량

지리산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광주 하남동에 20일 개원 대웅전·선방·강의실 갖춰 명상·시민대학 등 프로그램 다양



오는 20일 광산구 하남동에 개원하는 지리산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대웅전 내부(왼쪽)와 외관 모습.

현대인들은 바쁘다.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역설적으로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여유가 없어진다. 마치 기계의 부품품 같다. 이러한 때 한적한 산사를 찾아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향기에 젖어보는 것도 좋다. 바람소리, 물소리를 벗 삼아 한가롭게 전통 문화를 감상하다 보면 한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도심 속에 힐링과 여유, 수행을 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눈길을 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의 '빛고을포교원'이 최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등지를 틀었다. 본사인 화엄사는 민중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천년대찰이자 역사의 유구함과 빛나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찰이다. 또한 수행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온 수행도량이기도 하다.

그 화엄사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도심에 포교원을 개설한 것. 그동안 본사 위주의 수행자풍을 유지, 계승해왔으나 좀더 시민과 불자를 결연로 가까이 하기 위해 도심에 수행처를 연 것이다.

오는 20일 개원을 앞두고 방문한 이곳은 반잡한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라 다소 한갓했다. 물론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숲처럼 사방을 에워싸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외곽 쪽으로는 산과 들이 펼쳐져 있고 반대쪽으로는 군데군데 건물들이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전통문화와 현대도시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맞춤형 분위기가 흘렀다.

포교원의 시작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화엄사 전 주지인 원웅당 중원대중사의 원력으로 이곳 토지를 매입했다. 조실 명선 대종사와 문장 중국 큰스님, 회주 종열 큰스님 등 대덕스님들의 서원과 정성, 마음을 보탠 여러 인연들이 모여 결실을 이뤘다.

지난 2019년 가공식 봉행 2년 만에 개원을 앞둔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완공됐다. 화색 빛의 외관은 단아하면서도 현대와 전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분위기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도심포교도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고 신도님들이 수행과 수행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이곳 포교원이 신앙생활, 수행생활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도 세세상생 빛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약사전. 약사여래를 모신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선방,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교실을 갖추고 있다. 정면

약사여래 부처는 일반의 불상과 달리 미소를 짓고 있다. 이재순 석장(무형문화재 제120호)의 작품으로 정교한 조형미와 어우러진 온화한 미소가 일상에 지친 이들을 향해 위로의 미소를 건넨다.

전정에는 비천상의 조형물이 달려 있다. 근엄하지 않는 편안한 모습이 이편의 마음을 다독인다. 시민선방은 일반적인 선방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없고 대신 편안한 등반의자가 놓여 있다. 앉아 있으면 스스로 잠에 빠질 것 같은 분위기다.

2층에는 대웅전이 자리한다. 벽면을 에워싸고 있는 삼천불상에선 그것을 만든 이의 공력과 수고로움이 배어나온다. 삼존불상 좌우에 비치된 불탑형상은 미디어 조형물로, 따스한 빛을 발원한다. 천장 벽면을 장식한 탱화와 다양한 불교 기물과 도구들은 사찰의 내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느낌이다.

한편으로 화엄사의 '화엄(華嚴)'의 의미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비추



(화엄사 제공)

며 흘러가는 잠깐의 세계'가 바로 화엄이다. 걸림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상과 관점을 이곳에서 되새길 수 있다.

지하는 공양실과 대청마루, 화계마당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젊은 취향을 고려한 현대적인 디자인은 어느 모던한 찻집을 옮겨온 듯하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색적인 정원과 만난다.

포교원은 개원 이후 신도를 위한 다양한 수행프로그램(다라니기도, 참선)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문화강좌로 요가와 다도, 민요 등도 개설할 예정이며 직장인을 위한 명상반도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회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포교원 여성 주지스님은 "이곳을 부처님의 도량이자 다양한 불교문화와 삶이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6654-116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10년간 중앙도서관 대출 1위



최근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빌린 책은 모든 분야를 통틀어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로 조사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76주년을 맞아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10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출 실적 조사 시점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으며, 비문학·문학·고전문·족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계했다.

비문학 분야에서는 사피엔스에 이어 '총, 균, 쇠', '찢의 흐름을 따라', '침구보전', '철학 VS 철학'이 2~5위에 올랐다.

문학서 중에는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1위였다. 이어 '식객',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7년의 밤', '정글만리'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횟수가 가장 많은 고문헌은 작자와 간행시기를 알 수 없는 '고려시대 금석문 탁본'이었고, 족보 중에는 '창녕조씨 족보: 36과 53개소 합본'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보유 장서는 1945년 개관 당시 28만4천여 권에서 올해 6월 기준 1천312만2천547권으로 증가했다. 종류는 인문과학 자료, 수집 경로는 출판사가 의무적으로 도서를 제출하도록 한 납본 자료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 자료는 1천678만 점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성이 공정해야 세상도 아름답다"

강성률 광주교대 명예교수 장편소설 '복숭아꽃' 펴내



또 계절마다 마주할 수 있는 꽃과 식물에는 어떠한 성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본다. 제2장에서부터는 동서고금의 성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평생 132명의 여성을 농락한

카사노바, 70여 명의 여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던 박인수, 유혹된 못 남성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 동서양의 팜므 파탈들과 나라를 기울게 한 중국 4대 미인의 이야기 등을 살펴본다.

저자는 "성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그 본질이 구현되었으면 한다"며 "독자들이 여러 성 문제와 불공정에 대해 고민하고 시야를 넓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맘의 강물' '앞으로'...이수인 작곡가를 그리는 무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3일 광산청소년수련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42회 공연이 13일 오후 3시 광산청소년수련관 3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별써 그리운 이수인 선생님'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500여곡의 동요와 100여곡의 가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이수인 작곡가를 기리고자 그의 노래로 무대를 꾸민다.

'추억의 노래'로는 '방울꽃', '앞으로', '구름'을 다함께 부르며, '정다운 노래'에서는 '내 맘의 강물'과 '별'을 들려준다. 베이스 기세관은 '내 맘의 강물'을 부르며, 테너 엄평섭은 '불타는 강대나무'를 들려준다. 소프라노 오현자는 '아카시아'를, 테너 박상휘는 '그리운 얼굴들'로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그리움', '수택사에서', '석굴암', '하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단원들의 공연 장면.

그리움', '고향의 노래', '만월', '국화 옆에서',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외갓길' 등도 들려준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박연단·고재경·김영미·김종례·박화자, 테너유창중·김명문·김종석·조성석·김우진 등이 오른다.

한편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다음 공연은 오는 12월11일 열리며 노들담 형제의 집 후원을 위한 송년자선음악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65-23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nong Solar Energy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